

길 옆 녹나무

1

내 집 창문 앞으로
길이 뻗어 있는데
그 길 옆 한 그루 녹나무가
밤마다 자라고 있는데

2

걸어온 길을
기억치 못하는 모든
보행자는 녹슬어간다 불쌍한
우리는 매일 오가는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집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아름다운 청춘의 흥광에서
허물어지는 거꾸집으로
구멍 송 송
자유로이
 옮겨다니는 녹나무 뿌리들

처음 그것을
보행자의 영혼에 깬피로
추억의 빵부스러기에 내려앉은 먼지
그리고 마비와 망각
우리 모두가 가진 하늘에
묘지를 내고 비좁게 누운
우리사랑의 전모

창문 앞 벌써
녹잎이 입술에 닿고
한 잎 한 잎 지붕을 덮으면
오 아이들은 노파가 되고

그대 애인마저도

오그라져

녹을 만드는 커다란 나무가

꽃피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우리는 거리의 집이

말없이 흙이 깎여나가는 것을 보지않았는가

오가는 길마다

한밤처럼 꽃피는 녹나무

어릴 적 새도

사람도 돌아가고

3

내결 나의 애인 나의 집 언저리에

무더기로 핀 아, 녹냄새

내 안 녹나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영화관과 몇몇 술집들, 셔터를 내린 슈퍼마켓 옆
터무니없는 赤蟲들 사라져 가네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해 나는
시계와 기차를 두려워한다
전쟁이나 공포영화를, 어릴 적 일이다
천장 위 벽 틈 시체가 누워 있잖을까
흔한 환상이다 아버지는 그때 어디에?
군더더기 없는 사랑을 보면, 일순
심장이 정거하기도 한다. 창가에 앉아 있어
철자법이 완벽한 타이피스트가 되고 싶다
때로 아이를 갖고 싶다 끔찍한, 바퀴와
페달이 없는 자전거란 아무 소용이 없다
패쇄된 철로를 따라 불행한 사람이 걷고 있다
묵묵히 잊어버리고 싶은 일도 있는 것이다
무성히 자란 풀더미에 철로가 보이지 않듯
커튼이 내려지면 이 창가엔 무슨 꿈이 내려앉나
하늘을 쓸어버리는 자작나무 내 인생
그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
나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높이 올라
가지 끝을 밟고 땅에 내리고도 싶다 그러나
입 속 가득 화려한 구름을 물고 있는
나는 낡은 삼류 가수, 내게 물을 주네
비가 내리네 이 무슨 허구인가

녹나무 아래 2

놀러 온 사랑 소풍처럼 오더니만
쉬파리 뚝 속
놀다 가세요
남은 새 봄, 나를
홍안의 당신 거절치 않네

환청의 귀야 환시의 눈아
후두둑 빗발들어 닫히는
귀양사는 환부야 나는
연기처럼 어두워

나도 四隣도
꽃질걸
못질없이 서 가는 널인걸